



#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 율법, 믿음, 기도

## V. 거짓 성례

### 서론

1.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5가지 성례--견신례, 고해, 종부 성사, 신품서사, 혼례성사-- 잘못된 성례임을 칼빈은 증거.

성례를 설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러므로 성례를 성례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 V. 거짓 성령

### A. 견신령 - 1

2. 견신령은 인간의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으로 제정된 최초의 표식. 견신령은 세례 때 죄의 결별을 위해 주어졌던 성령을 수여해서 은혜를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세례를 통해 중생했던 사람들에게 싸워나갈 힘을 더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견신령은 기쁨바름과 일정한 선언으로 행해진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표를 치며, 구원의 성유로 그대에게 견신령을 베푸노라.”

여기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 V. 거짓 성령

### A. 견신령 - 2

3.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던 그 눈에 보이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수여하고 나눠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기이한 능력들과 두드러진 역사들은 중단되었다. 그런 일들은 적절하게 잠시동안만 있었다. 새로운 복음전파와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은 반면에 그의 말씀의 존귀성에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 V. 거짓 성례

### A. 견신례 - 3

4. 그들이 성유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무력한 물질일 뿐이다. 그러므로 영적이며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하다.



## V. 거짓 성례

### A. 견신례 - 4

5. 세례는 견신례가 없어도 충분히 완성적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부인하는 파렴치를 범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롬 6:4-5)?

사탄은 경솔한 사람들을 은밀히 세례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세례에서 참으로 주어졌던 것이 그의 견신례에서도 주어진다고 속인다. 견신례는 세례에 대한 모독이며, 세례의 기능을 무색케 하거나 폐지시킨다. 마귀의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 V. 거짓 성례

### A. 견신례 - 5

6. 그들은 모든 신자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은 후에 안수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주교의 견신례를 통해 성유를 바르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

## V. 거짓 성례

### A. 견신례 - 6

7. 마침내, 이 거룩한 기름 (?)이 세례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단정.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거룩한 제도를 함부로 경멸하는 미친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 V. 거짓 성례

### A. 견신례 - 7

8. 인간의 고안품들이 난무하는 성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비쳐질 틈이 없다.
9. 성례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 V. 거짓 성례

### A. 견신례 - 8

10. 두 가지 성례만 바른 것임을 가르치려면, 최선의 방법으로 교리문답을 작성하는 것. 모든 기독교회가 받아들이는 우리 신조의 대부분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포함시키는 것.

열살된 아이는 교회 앞에서 신앙고백, 신조 질문대답, 그 아이는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하나의 진지한 믿음 고백할 것.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

#### 11. 회개에 관한 성경가르침.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

12. 회개 가르침 두 부분. 자기를 죽이는 것과 새로 사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 죄를 진실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진실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자신이 비참하고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 새 사람 되기 원하기 때문. 다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위안. 하나님의 선하심을--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의 긍휼, 은혜, 구원을--바라봄으로 기운 북돋우며 마음 잡고 용기 회복한다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

13. 율법적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됨.

복음적 회개는 죄인은 실로 심각한 고통에 빠지나, 자기 공포에 대한 위로와 비탄의 피난처로 그리스도를 붙잡음.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함같은 것.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

14. 회개는 우리 육신과 옛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순전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5

15. 복음의 대의는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이 두가지 요강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권고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까웠다고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 구원, 영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선포하심으로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의 부활 후 사도들도 이렇게 설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행 5:30-31).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6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성향과 노력이 부패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게 된 때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회개는 거듭남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들도 죽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무덤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몸도 장사 된다 (롬 6:6).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7

죄사함을 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고전 1:30)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그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칼빈은 회개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석. 이 회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끌어 준다. 그리스도는 신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주리고 목마르며 슬픔과 비참으로 죽어가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죄인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사 61:1-3; 마 11:5, 28; 눅 4:18).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지향, 분투, 그것에 몰두하고 전 생애를 투입하여 추구해야 한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8

칼빈은 강조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심히 불만족해 하도록 배운 사람은 크나큰 이득을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접붙임을 받으려 하나님께 달려 가며 갈망함으로, 회개에 관해 속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회개의 이해가 성경에 가장 잘 일치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9

16. 스콜라신학자들의 회개에 대한 궤변. 회개는 이전 죄를 슬피우는 것, 울어야 할 죄를 범치 않는 것, 과거 악행에 대하여 통회하는 것, 통회해야 할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 그들은 이 기준을 지킬 것인가! 할 수 없는 논리를 펴기에 그들을 칼빈은 비판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0

17. 칼빈이 가장 회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회개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어떤 근거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얻어지는 가이다. 이 지식이 분명,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전혀 쉼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이나 어떤 신뢰나 확신을 얻을 수 없고, 마음 졸이고 동요하고 흔들리고 괴롭고 고민, 떨고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 한다. 죄의 용서가 그들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로서 그 보다 비참과 절망은 없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1

18. 그들은 통회가 용서얻는 첫 단계로 간주하고 그 통회가 정당한 것, 올바르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어느 때에 전력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애통해 했다고 자처할 수 있을 것인가?

죄의 용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죄를 자각함으로써 괴로워하고 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칼빈은 회개가 사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2

죄인은 회한이나 눈물에 머무르지 않고, 두 눈을 하나님의 긍휼에만 고정시켜야 한다고 칼빈은 가르쳤다.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다는 (마 11:28) 것을 상기키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풀어 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냄 받았기 때문이다 (사 61:1; 눅 4:18).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3

스콜라 철학자들은 죄의 용서를 올바르게 충분한 통회에 의해 받아진다고 하는 인간이 결코 이행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친다. 반면 칼빈은 죄인이 그의 비참과 동요와 피곤과 사로잡힘을 인식함으로써 소생과 평온과 해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을 좇아 주리고 목말라 하도록 인간에게 요구하는 복음신앙은 스콜라 철학자들과 크게 차이가 있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4

19. 고해가 하나님 계율에 의해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모든 성경귀절들을 곡해하고 와전시키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직분은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그 안에서 완성, 종결되었으므로 제사장의 모든 권리와 명예도 오직 그리스도께 옮겨졌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5

21. 교회사가 소조멘은 교회에서 고해의 관례는 일시적으로 무시되었고, 자신의 기억에 의하면 없던 것이었다라고 진술.
22. 성경에서 “고백하다”는 “찬양하다”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점 상기.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6

23. 죄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사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며 씻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얻기 위해 그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그는 의사이시므로, 그에게 우리 상처를 내보이자. 그가 해와 손상을 입으셨으므로, 그에게서 평강을 찾자.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므로 (히 4:12), 우리 마음을 그 앞에 내어 놓자. 결국 그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자.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7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단연코 그 분에게 한다. 즉 우리가 고통스럽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면, 그 앞에서 진심으로 자책하고 뉘우치면, 우리는 그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용서받는다.

성경은 두 가지 사적 고백을 인정한다.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우리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한 야고보의 말과 관련된 것. 그는 우리 약점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 조언, 위로로 돕게 된다는 것 의미.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8

다른 한 예는,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손상당했을 때, 화해하기 위함이다 (마태 5:23-24).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19

24. 칼빈의 논적들은 무엇이라 하나? 모든 “남녀”가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담당 사제에게 자신들 모든 죄를 고백하여야 하며,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지 않으면 자신들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고 선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해 실행 않으면 낙원 길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마 18:18) 말씀이 유효함으로, 사제가 죄인을 매거나 푸는 열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0

25. 고해의식을 경시하면 낙원에 갈 가망이 없다는 주장은 황당무궤. 다윗도 자신의 죄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하물며 어느 누가 자기 죄를 열거해 볼 생각을 하겠는가? 전혀 있을 수 없는 법으로 죄인들이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위선자가 되게 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1

26. 고백을 시작한 우리의 악의 수렁이 우리 이해 초월함을 인정, 고백하는 것. 모범적 고백--세리의 고백.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 이렇게 내어놓을 때라도 더 많은 죄가 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 때, 사제같은 사람의 귀에 고백했다는 것 볼 수 없다. 고해신부도 없고 고백자체도 없었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2

27. 교회에 대해 그렇게 유해하고 또 각양 해를 끼치는 이 비밀고해를 칼빈은 정죄하고, 그것이 교회로부터 추방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음을 보인다! 그것은 무익하고 헛되고 게다가 많은 불경과 신성모독과 과오를 유발하는 것인 만큼, 누가 그것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묻는다.

고해성사는 완전히 거짓이다. 한 번 고해성사를 하고는, 일년 내내 대담하고 제멋대로 죄를 짓는다. 사제에게 고백했다는 핑계로, 하나님도 잊어 버린다. 비밀고해에는 가공스러운 추행이 들끓고 있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3

28.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 는 말씀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 20:23)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 “나는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16:19)는 무슨 뜻인가?

위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열어 주고, 이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문들을 막고 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요, 푸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4

29. 칼빈은 위의 말씀을 계속 쉽게 설명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에 관한 말씀은 오직 말씀의 사역에만 관계된 말씀임을 강조한다.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해방자와 구속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받고 영원한 결박에 얽매인다는 것이 복음의 총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5

열쇠의 권한은 단지 복음전파에 관계하며, 사람들과 관계시킬 때는 그것을 권한이라기보다는 사역이라고 결론짓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실제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역자로 만드신 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6

30.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마 16:19),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7-18).

이 말씀에서 전자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행하는 전파와 관련되었고, 후자는 교회에 위탁된 파문, 징계에 적용. 신자들이 땅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인준 된다는 사실 천명.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7

31.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매고 푸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가 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이 누구나 열쇠를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은 성령을 소유했다고 하나 실제 부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식도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쇠의 권위와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은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사역에 의해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8

32. 교회의 열쇠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적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공상하고, 교황이 그의 교서와 면죄부를 통해 이것을 분배한다고 하는 중세교권주의자들의 오류를 칼빈은 지적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미치광이와 다름없음을 보인 후, 칼빈은 그러한 자들과는 논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병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강조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29

면죄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제멋대로 보존되었나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칼빈이전 중세시대가 수세기동안 얼마나 깊은 오류의 흑암에 빠져 있었던가를 충분히 보임을 칼빈은 안타까이 지적한다. 영적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영혼구원은 이윤높은 매매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가격은 몇푼 동전으로 계산되고, 거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떠드는 것이다. 그들이 낸 돈은 매음부와 포주들에게 탕진되었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0

33.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판매자들의 사기와 기만을 보면서, 그 불경의 원천 자체는 보지 못한다. 진실로,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며, 사탄의 비웃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끌어내어 구원의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1

3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골 1:24)는 바울의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거나, 그가 무엇을 보태려 했다고 오해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치워야 한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2

35. 그들은 고백에서 보속교리를 세 번째 둔다. 눈물, 금식기도, 자선등 구제행위가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오해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3

36.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칼빈은 값없이 주어지는 죄사함을 대조시켜 놓는데, 성경만큼 더 명료하게 제사하는 것은 없다 (사 52:3; 롬 3:24-25). 첫째, 용서는 순전한 관용에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속에 관한 모든 생각을 말소하기 위하여 “값없이”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는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라는 말은, 우리는 아무 것도 가져 오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것을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위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복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후 5:19)라고 바울이 선언한 그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4

세례 시에 죄속함은 단 한번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칼빈 당시 중세교회와 현재 천주교회는 보속을 통해 용서받고 교회 열쇠를 통하여 나누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기자들의 말은 보속교리의 오류를 밝히 드러낸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수 그리스도시라...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일 또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요일 2:12)라고 말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5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죄의 대속물로 확실하게 제시한 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화해시킬 수 있는 다른 보속은 없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인간과 화해하셨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 다른 화해 수단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로 하여금 성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보호자시요, 또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 1:29)되신다는 세례요한의 말은 정녕 진리인 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6

칼빈은 강조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만이 죄를 위한 제물이며, 유일한 화목제물이며, 유일한 보속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명예가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고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한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7

이사야는 성부께서 우리 모두의 죄과를 성자에게 담당시키시고 (사 53:6),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사 53:6) 말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한다 (벧전 2:24).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있는 육신이 되어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갈 3:13; 롬 8:3) 쓰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벌을--지웠을 때에, 그의 육신에서 죄의 세력과 저주는 도말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8

우리의 죄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그에게 맡겨졌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 이것들을 속량했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39

37. 중세교권주의자들은 죽을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였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범죄 하는 영혼은 죽을찌라**” (겔 18:20). 신자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롬 8:11) 때문이다. 죄가 전가되지 않고 용서받아 씻겨지기 때문이다 (시 32:1-2).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0

38. 중세교권주의자들은 벌과 죄책을 구별한다. 그들은 죄가 면죄된 후,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벌이 남아 있다고 한다. 보속은 순전히 형벌의 면제와 관련된다고 주장. 그러나 죄사함에 관한 성경 내용은 정반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새언약이다 (렘 31:31, 34).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2).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 1:18).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1

이사야는 이것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 53:5)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롬 8:1)고 단호히 선포함으로 이 약속을 확증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2

39.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부터 실로 자유로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없고 순전한 것처럼 보신다는 것이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3

40.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곧 보응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이다. 보응의 심판은 타락한 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죄를 처벌, 보복하시는 것이다.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일깨우시는 것이다.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 V. 거짓 성령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4

41. 눅 7:50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어,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으며, 사랑으로써 주님 호의에 감사함을 증명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5

42. 그들이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파문처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친교에 들어가려고 교회 앞에서 자기의 회개를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해와 보상이 발단되었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6

43. “연옥”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옥설은 솔한 신성모독에서 비롯되었고, 나날이 신종의 신성모독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중죄를 짓도록 자극함으로,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7

44. 죄의 보상을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데서 찾는 다거나 보상이 다른 데로 전이될 때 침묵함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목청껏 연옥설은 사탄의 극악한 고안품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 믿음을 전복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외쳐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연옥은 사자들 영혼들이 죄에 대한 보상으로 겪고 있는 징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신자들 죄에 대한 유일한 보상, 유일한 값음, 유일한 정죄가 명백함으로 연옥은 단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V. 거짓 성례

### B.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고해의 문제점 - 48

고해성사라는 성례를 그들은 설명하여, 외형적 고해만 성례이고, 내면의 회개는 성례의 본체임과 동시에 성례라고 한다. 나아가서 죄사함은 본체일 뿐 성례는 아니라고 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성례를 어떻게 가정하든, 그것을 성례로 여기는 것을 칼빈은 단호히 거부한다. 첫째, 성례의 근거인 하나님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의 발명품이지 하나님 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해성사는 날조된 거짓 사기라고 칼빈은 강조한다.



## V. 거짓 성례

### C. (세칭) 종부성사 (임종시 주어지는 천주교성례) - 1

45. 세 번째 거짓성례는 종부성사이다. 사제만 수행하며, 임종시 주교가 성별한 기름을 붓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말한다. “이 거룩한 도유를 통하여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만지거나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자비로써 그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지니라.” 그들은 종부성사가 때가 맞으면 죄를 사하고 육신을 낫게 하며, 안 맞으면 영혼만 구원한다고 하며, 야고보에게서 제정되었다고 덧붙인다.

## V. 거짓 성례

### C. (세칭) 중부성사 (임종시 주어지는 천주교성례) - 2

그러나 야고보의 말은 그들의 주장과 틀린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약 5:14-15). 칼빈은 중부성사는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

## V. 거짓 성례

### C. (세칭) 중부성사 (임종시 주어지는 천주교성례) - 3

46. 저들의 도유가 지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음은 그런 능력을 수여하는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칼빈은 보인다.
47. 칼빈은 도유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며, 어떤 약속도 없으므로, 그것은 성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한다.

## V. 거짓 성례

### C. (세칭) 중부성사 (임종시 주어지는 천주교성례) - 4

48. 야고보가 모든 병자들이 기름 바르기를 원하는데 (약 5:14), 중세교회는 병자에게가 아니라, 임종직전 시체같은 자들에게 기름을 바른다.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이 병자에게 기름바르라고 했으나, 후자는 젊은 사제를 도유자로 인정한다. 칼빈은 그들이 가증스런 도유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사악스럽게 거짓말함을 고발한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

49. 그들이 7성사를 주장하면서 막상 열세가지나 말하니 우습다고 칼빈은 지적한다.

50. 숫자 자체는 성경을 왜곡함으로 시작된 것이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2

51. 칼빈은 그들은 스스로 “성직자”라고 부르나 온 교회가 가져야 할 이 명칭을 자기들 것이라 하는 이들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음을 보인다. 그 유산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벰전 5:3). 베드로는 소수의 체발한 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3

베드로는 신자들에 대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벰전 2:9) 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온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소수 사람들에게 짜 맞춘다. 그들만이 그리스도에 의해 왕국과 제사장된 것 같이 (벰전 2:5, 9).--여기서 칼빈은 만인제사설을 통해 교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4

52-3. 중세교권주의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서품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자기 동료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성경말씀 여기 저기서 따서 아무 것에나 신품을 만들어 내는 오류를 범하였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5

54. 이들의 사제직은 불경과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제물을 바친다고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6

55. 한편, 사도들을 계승하는 자들에게 부여된 거룩하고 침범할 수 없고 영속적 법이 따로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따라서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에 역점을 두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악하게 사도들로 가장하고 있는 것임을 칼빈은 강조한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7

56. 사도들과 현재 교회 관리 담당자들과 차이.

첫째, 사도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주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열두 사람. 사도들. 여러 지역 복음 전파하라는 명령 받음. 후자는 “장로들”, “주교들”이라 일컬어,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데, 지역교회 맡게 됨.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8

57. 장로의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

감독은 말씀과 성례 사역 부름받은 사람.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 직분 감당해야 하는 사람. 감독들과 장로들은 “교회 사역자들”로, 직분은 사명 자체.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9

58. 누가 감독들, 장로들 임명하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부터 안디옥 흩어진 교회 임명한 장로들 언급 (행 14:22-23).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교권주의자들은 감독직이 아니라 제사장을 임명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선포자 외에 어떤 다른 사역자 없다. 그는 교회를 지도하도록 부름 받았고, 때로 “감독”으로 (행 29:28), 때로 “장로”로 (행 14:23), 또 “목자”로 (벧전 5:4) 부른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0

59. 중세교회 서품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탄에게 제물을 바쳤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1

60. 교회 사역자들은 누가 임명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와 의견을 나누고 올바른 신조, 흠없는 생활을 견지하는 형제들을 그 직위에 임명했다. 교회가 사역자를 선출하기 전, 선택을 위해 심사 숙고 하려할 때, 탁월한 이웃 감독 한 둘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적격인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카프리안은 모든 사람 참여하는 선출을 합당하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2

61. 그러나, 칼빈은 “불확실한 다수는 상반되는 관심사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 사실임을 지적하고, 건전한 신앙과 청렴으로 존경받는 감독 몇 사람을 고문자격으로 대동하고, 평의원이나 원로들이 선택하는 소임을 수행할 것을 추천하였다.

## V. 거짓 성령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3

62. 임명을 몇 몇 고위성직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치료약이 질병 자체보다 더 치명적이 될 것을 칼빈은 동시에 경고한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4

63. 교회법에 감독들이 교회를 파멸로 이끌 만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법은 부패하여, 감독직은 두장이 노릇과 간통 주선에 대한 보답품으로 주어졌고, 엄청난 불법이 교회법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옹호되어, 파당의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5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제대로 종알거릴 수 없는 아기가 친척들로부터 유산으로 직위를 받아 “교회 목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 평신도들이 이러한 잔학상을 간과하면, 그들도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6

64. 장로 임명 장립식에 어떤 예식을 치루어야 하는가! 중세 교권주의자들은 도유법을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물려 받았다고 대답하나 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침범하는 것이다. 구약 모든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시, 예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 이교, 기독교를 한데 묶어 한 종교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7

65. 안수례. 디모데 감독으로 장립받을 때, 장로회의 안수를 받는데, 이것은 안수식, 곧 목회자들의 회합을 말한다. 사도들이 했던 대로,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수법을 사용한다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 이 신비는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것도 아니요, 상징으로 제정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8

그러나 만약 주교로 세움받은 사람이 교회가 보는 중앙에서, 이 직임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기도받고 장로들의 손으로 안수 받으며 (자신을 목자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외에는 아무 의식도 없이), 교회는 공중 기도로써 그를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은 그런 안수에 찬성해 마지 않을 것.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19

66. 집사직의 기원과 임명, 그리고 직책에 대해서, 사도행전 누가가 언급. 집사들은 단정,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 인박 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 탐하지 않고, 믿음 견고하며 (딤펴전 3:8-9), 한 아내 남편, 자녀와 자기 집 잘 다스리는 자들 (딤펴전 3:12). 카톨릭교회는 사람들을 뽑아 놓고 성상만지만 털 게 하니, 그들은 실속없이 허례로 임명했을 뿐.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 V. 거짓 성례

### D. 성직의 계급 : 신품 성사 - 20

67.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례도 없다.

## V. 거짓 성례

### E. 혼인성사 - 1

68. 마지막 성사는 혼인성사. 그레고리우스시대까지는 이것을 성례로 집행하지 않았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고 거룩한 의식이나, 농사가 성례가 아닌 것처럼 혼인도 성례는 아님을 성례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근거로 칼빈은 주장한다.



## V. 거짓 성례

### E. 혼인성사 - 2

69-70. 비유들을 성례에 포함시키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는데, 이는 중세교권주의자들이 바울이 결혼에 “성례” (=비밀)라는 말을 적용시켰다고 주장함에 기인한다.

## V. 거짓 성례

### E. 혼인성사 - 3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이 비밀 (mysterion, sacrament)이 크도다.” 바울은 여기서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한 것뿐임을 칼빈은 보인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sacrament**는 **mystery**, 곧 비밀이라는 희랍어의 뜻으로 사용됨.

## V. 거짓 성례

### E. 혼인성사 - 4

71. 혼인에 성례라는 칭호를 붙여 장식해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불결과 타락, 육적 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 어떤 경거망동인가 하고 칼빈은 오히려 묻고 있다.